

#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출범

### 전주시, 13명 위원 구성...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지원·협조 역할 수행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중·일 3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이끄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실에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리고,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24일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실에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리고,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24일 가졌다.

추진위원회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등 문화 관련 기관 대표와 문화예술분야 단체장, 예술인, 온혜정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추진할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다

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추진위원회는 향후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

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협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정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선정해 연중 문화예술 협력 및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중국 청두(成都)와 메이저우(梅州), 일본 시즈오카현과 함께 오는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돼 1년간 동아시아 3국의 문화교류사업을 이끌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으로 준비하겠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만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겨울철 위기가구 긴급 지원 총력

### 전주시, 내년 2월까지 집중 발굴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숨어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자생 단체를 활용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거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긴급 지원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긴급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9,000원) 이하, 재산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등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긴급 지원은 생계지원(1인 기준 583,000원, 4인 기준 1,536,000원)과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등 9종으로 이뤄졌으며, 동절기를 맞아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가구당 월 10만 원 가량의 동절기 연료비가 추가 지원된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동절기를 맞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제도를 몰라 방치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발굴해야 한다"며 "대상자 발굴시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또는 위기가정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덕진구청 복지지원팀(063-279-6970),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12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재난 발생 대응역량 강화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 전주시 13개 부서·소방·경찰·군 등 유관기관 7곳 참여 진행

전주시가 소방·경찰·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촘촘히 살렸다.

시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4일 진행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가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범 정부차원의 재난대비 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드론 테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됐다.

이 훈련에는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

부를 구성하는 '13개 협업부서, 덕진소방서, 덕진경찰서, 육군 9585부대 2대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KT 전주지사, 전북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7곳'이 참여해 합동 현장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재난상황에 대한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의 단계로 현장훈련을 실시했으며,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신장시키고 협업체계를 공고히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재난에 대한 염려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며 "오늘 훈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재난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전

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가져

전주시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대강당에서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그간 갖고 닦은 끼와 재능을 맘껏 뽐내는 '202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강생과 주민자치위원 위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진행됐다.

각 동별 우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라인댄스, 난타, 한국무용, 통기타 연주' 등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선보였고, 행사장을 찾은 5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댄스교실 참가자는 "발표회를 통해 열정적인 댄스를 보여줄 수 있어서 기

쁘다"며 "오랜민이라 많이 떨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숙희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발표회를 통해 수강생들이 기량을 맘껏 발휘하고 소통과 화합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순위를 떠나 모든 주민들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산악사고 주의하세요"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산악사고 예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소방본부 구조활동 통계자료에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총 2,462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5.1%(866건)가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사고 주요 안전수칙에는 야간

산행 자제, 미끄러움 사고주의, 음주 및 흡연 금지, 지정된 등산로 벗어나지 않기, 국가지정번호·다목적 위치표지판 숙지, 조난 시 위치 파악 위한 휴대폰 GPS 기능 활성화, 랜턴 및 보조배터리 구비 등이 있다.

또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외투를 준비해 급격한 체온 저하에 대비해야 한다.

/최이영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처리 홍보 펼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은 매우 중요하며,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노후 소화기 처리에 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폐소화기는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며 주민들이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또, 대형 폐기물 수수료 신고 필증은 전화와 인터넷 접수(jwaste.co.kr)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전주덕진소방서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시민들께서는 소화기의 유지와 관



리에 대한 관심으로 적절한 시기에 폐기 및 교체해 화재 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이영 기자

